





# 산림복구전투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수행에서의 성과와 결함을 놓고

혁명적인 총봉세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정취할 때 대 한 당의 전투적호소는 뜻깊은 울해의 산림 복구사업에 펼쳐 나선 천만군민을 보다 큰 위훈창조에 힘있게 불러일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전후에 전제 인민이 떠나거나 부 구건물을 한자처럼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한사랑같이 떠나 나설 때 대 한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으로 담았고 헌신적으로 푸성하여 온 지난 3년간의 나날을 궁지들이 돌아보고 있다.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대단히 어렵고 빙대한 사업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법원, 강국법원을 활짝 펼쳐우려는 불같은 행세, 오늘을 위한 오늘들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피는 승고한 인생관을 지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십만정 보의 면적에 많은 나루를 짓았다. 산림복구전투장은 자기들의 애국심을 겸임하는 마땅으로 여기고 한그루, 한그루를 파악기술적으로 대로 심어 사를풀을 보강하였다.

산림복구전투의 명기상인 양교장을 훈 대적으로 무기력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그나마 온정속에 조선인민군 제 1·2·2호양장이 우리 나라 양교장들의 본보기, 표준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일제서고 각 도들에 이런 현 대적인 양교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으며 각지 양교장들에서의 나무모생산능력이 크게 확장됨으로써 산림복구전투를 보다 풍기 크게 작전하고 내밀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당시의 온정장군 조치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부문의 파학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산림과학기술대학에서의 나 라의 전반적인 산림과학기술준을 높은 단 계에 유통해줄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진 국자원도에서의 농동봉합, 경영방법도입과 우리식의 테라코特派员, 청진국적인 산림감시공제체의 퇴입, 농동봉출은 산림기체들의 제작완성 등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이바지한 학습적용성은 성과물이 이루어져 온 나라의 수립화, 원립화를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략이 열렸다.

이 모든 성과의 비결은 당중앙의 꾸성파 결심은 파악이고 계획이며 실현이라는 확고한 판정을 지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정 책판들을 위한 두루망에 높은 책임성과 창조적극성, 무한한 친선성을 발휘함에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물을 펼쳐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기꺼운 앞날에 모든 산을 푸른 숲이 실히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킬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책임임을 알고 대로 이를 끌어내기 위한 기관차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당시의 이 원대한 구상을 및 나에게 실현하여야 한다.

오늘의 경영한 전민총동력전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어릴이 얼마나 중요한 하는 것은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수행에서의 성과와 교훈이 무엇이 보여주고 있다.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 키기 위한 애국충정의 불길이 세계에 태오

되며 세계로, 회령시, 연천군, 청평군, 용산군, 만경대구역, 분북군, 양구군, 대천군, 충북군, 강계시, 금강군, 리원군, 대홍단군, 천리마구역을 비롯한 많은 시, 군, 구역에는 당시 제시한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의 지표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 광활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 나날에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준 과업을 소홀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찰해나갈 때 후대들에게 반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되었다.

처밀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 혁명적인 일분에서는 전투승리의 군본답보이다. 대중의 무구투한 한 힘은 린립되는 조직사업이 된다. 일당침투 때 더 큰 위력을 나타내게 된다.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수행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둔 만경대구역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구역에서는 해마다 전쟁하는 나무심기를 대중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단위를 호상간에도 경쟁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였다. 충북청화가 예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무심기를 진행한 한 장소들을 차례로 둘러며 데나루들을 빠짐없이 살펴보면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결국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나무를 심고 비파판리도 책임적으로 하여 높은 사률률을 보장할수 있었다.

성과의 비결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것을 험으로 삼았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판관에서의 철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이며 그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이 놓여있다.

만경대구역에 나무심기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종관행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당장에 철적으로 책임진다는 맹정에서 모든 책임을 책임하고 있으며 당원과 당부를 찾고자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는

#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증산예비

천성 청년 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산량이 적고 재료조건도 어려워  
판상박에 두고있던 천장들을  
빼김없이 빠져야하고 이 개소  
들에서도 석탄생산을 대체로 내<sup>밀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sup>

그렇지만 계기가 있었다.  
탄광앞에 달려온 네간 석탄생  
산계회는 지난해보다 훨씬 높았  
다. 이 때문으로 전력회사  
만 원터너니에 재료수를 더  
늘어야 하였다. 여기에 인입할로  
로 력보증문제도 따라세워야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  
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답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직  
직의 일본사가 안받침되며 우  
리에게 점령 못할 때도 끝  
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올해에 탄광일군들은 석탄생

산량이 적고 재료조건도 어려워  
판상박에 두고있던 천장들을  
빼김없이 빠져야하고 이 개소  
들에서도 석탄생산을 대체로 내<sup>밀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sup>

그러나 이번에는 로력조직사  
업이 종결과 함께 진행되었다.  
새로 들어온 로력을 분산적으로  
배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  
이다.

우선 로력을 수십 명씩 어려

단위로 전성하여 새로 전개한  
작장들은 짐승배지화도록 하였

다. 이것은 점진적 혁신의 물결

을 높이고 단위별 경쟁심을 불

이루으키는데서 좋은 방도로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중시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로력전성이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생산수단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때문에 탄

광일군들은 기공구와 공구함을

작인 단위들의 역량을 보강하는

원칙에서 기본정률에 배치하군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로력조직사  
업이 종결과 함께 진행되었다.  
새로 들어온 로력을 분산적으로  
배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  
이다.

우선 로력을 수십 명씩 어려

단위로 전성하여 새로 전개한  
작장들은 짐승배지화도록 하였

다. 이것은 점진적 혁신의 물결

을 높이고 단위별 경쟁심을 불

이루으키는데서 좋은 방도로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중시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로력전성이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생산수단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때문에 탄

광일군들은 기공구와 공구함을

작인 단위들의 역량을 보강하는

원칙에서 기본정률에 배치하군

에서는 렘프팅의 유판로선에  
있는 석탄선별체에 별도 판심  
을 둘리지 않았다. 이 공정이  
오랜 기간 만가동하는 조건에  
서 누구나 소홀히 대하였던 것  
이다.

이 문제가 세기되었을 때 일군

들은 군중탈동의 방법으로 와타

다 해제될 면밀한 작전을 썼다.

실례로 탄광지구의 너명조직을  
말단하여 기공구생산에 필요한  
파찰을 모아들이는 사업이 활발

히 일어지게 한것을 들수 있다.

빈틈없는 전투작전은 성과를

안이오기 마련이다. 가두면 원

들이 3일동안 근 10t의 파찰

을 공무직장구내에 두드里 쌓아

놓았다. 뿐이어 이곳에서 물길

을 높이고 단위별 경쟁심을 불

이루으키는데서 좋은 방도로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중시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로력전성이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생산수단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때문에 탄

광일군들은 기공구와 공구함을

작인 단위들의 역량을 보강하는

원칙에서 기본정률에 배치하군

이다.

하지만 일군들의 생각은 달

랐다.

석탄선별체의 가동상태를 묘

해하면 일군들은 이 공정에 도

는 생산에 비가 있다는 결론을 내

렸다. 경쟁한 전투의 환초한초는

난판일에 주호도 통로를 모르는

전투원들의 물길 두정과 음수습도

을 세기하여 빠져죽은 것이다.

하지만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즉시에 선별체의 간

격을 줄이는 동시에 자동하지

않으면 마비키도 고려하여 밤길

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세웠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과 함께 석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밤길

도 빈틈없는 조적사업이 단단히

풀때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은 예비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별체를 개조하면 생산수

#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자

## 전초병의 영예를 빛내이며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소성직장로동계급

사람들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소성직장로동계급을 이렇게 일컬어 말하였다.

«소성로의 숨결을 지키자고 우러가 있는 것이오. 물려설 길이 없소.»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호 같은 밀음에 더 높은 크링카생산성으로 보답하자고 늘 호소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선 그의 모습은 그대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멍이었고, 적응력으로 힘을 더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뿌듯한 전통입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혁명적성으로 맞이하려는 열의를 안고 떠나온 직장로동계급의 기세는 힘들을 쐈을뿐 아니라

직장장과 함께 작업반장 박성남, 당세로위원장 조정철동무를 비롯한 소성 1 작업반원들이 표대로 고인에 뛰어들며 로의 숨결을 살피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었다.

이렇게 단 2시간안에 로보수를 끌내고 이를은 걸려야 한다면 소성로화입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되었을 때 이를이 모보는 회열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도 이곳 직장로동계급은 뜻밖의 일로 가동을 멈춘 1호소성로의 보수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죽죽은 로앞에 불거선 직장로동계급의 기운은 떠날빠질 틀에 이갔다.

가동을 멈춘지 불과 몇시간밖에 되지 않는 로안의 온도는 수박 30℃, 사람의 불어가 작업을 하자면 아직 20여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였다.

하루를 빼 날낮밤으로 험난한 일로 끝나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청진같은 시간이었다.

이때 로앞으로 주저없이 나서는 사람은 있었다.

직장장 환분성동무였다.

그의 근엄한 기색에서 로안에 들어설 결심을 읽은 사람들이

저마다 앞을 막아설 때 그는 이렇게 일컬어 말하였다.

«소성로의 숨결을 지키자고 우러가 있는 것이오. 물려설 길이 없소.»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호 같은 밀음에 더 높은 크링카생산성으로 보답하자고 늘 호소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선 그의 모습은 그대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멍이었고, 적응력

으로 힘을 더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뿌듯한 전통입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혁명적성으로 맞이하려는 열의를 안고 떠나온 직장로동계급의 기세는 힘들을 쐈을뿐 아니라

직장장과 함께 작업반장 박성남, 당세로위원장 조정철동무를 비롯한 소성 1 작업반원들이 표대로 고인에 뛰어들며 로의 숨결을 살피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었다.

이렇게 단 2시간안에 로보수를 끌내고 이를은 걸려야 한다면 소성로화입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되었을 때 이를이 모보는 회열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도 이곳 직장로동계급은 뜻밖의 일로 가동을 멈춘 1호소성로의 보수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죽죽은 로앞에 불거선 직장로동계급의 기운은 떠날빠질 틀에 이갔다.

가동을 멈춘지 불과 몇시간밖에 되지 않는 로안의 온도는 수박 30℃, 사람의 불어가 작업을 하자면 아직 20여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였다.

하루를 빼 날낮밤으로 험난한 일로 끝나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청진같은 시간이었다.

이때 로앞으로 주저없이 나서는 사람은 있었다.

직장장 환분성동무였다.

그의 근엄한 기색에서 로안에 들어설 결심을 읽은 사람들이

저마다 앞을 막아설 때 그는 이렇게 일컬어 말하였다.

«소성로의 숨결을 지키자고 우러가 있는 것이오. 물려설 길이 없소.»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호 같은 밀음에 더 높은 크링카생산성으로 보답하자고 늘 호소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선 그의 모습은 그대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멍이었고, 적응력

으로 힘을 더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뿌듯한 전통입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혁명적성으로 맞이하려는 열의를 안고 떠나온 직장로동계급의 기세는 힘들을 쐈을뿐 아니라

직장장과 함께 작업반장 박성남, 당세로위원장 조정철동무를 비롯한 소성 1 작업반원들이 표대로 고인에 뛰어들며 로의 숨결을 살피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었다.

이렇게 단 2시간안에 로보수를 끌내고 이를은 걸려야 한다면 소성로화입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되었을 때 이를이 모보는 회열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도 이곳 직장로동계급은 뜻밖의 일로 가동을 멈춘 1호소성로의 보수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죽죽은 로앞에 불거선 직장로동계급의 기운은 떠날빠질 틀에 이갔다.

가동을 멈춘지 불과 몇시간밖에 되지 않는 로안의 온도는 수박 30℃, 사람의 불어가 작업을 하자면 아직 20여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였다.

하루를 빼 날낮밤으로 험난한 일로 끝나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청진같은 시간이었다.

이때 로앞으로 주저없이 나서는 사람은 있었다.

직장장 환분성동무였다.

그의 근엄한 기색에서 로안에 들어설 결심을 읽은 사람들이

저마다 앞을 막아설 때 그는 이렇게 일컬어 말하였다.

«소성로의 숨결을 지키자고 우러가 있는 것이오. 물려설 길이 없소.»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호 같은 밀음에 더 높은 크링카생산성으로 보답하자고 늘 호소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선 그의 모습은 그대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멍이었고, 적응력

으로 힘을 더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뿌듯한 전통입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혁명적성으로 맞이하려는 열의를 안고 떠나온 직장로동계급의 기세는 힘들을 쐈을뿐 아니라

직장장과 함께 작업반장 박성남, 당세로위원장 조정철동무를 비롯한 소성 1 작업반원들이 표대로 고인에 뛰어들며 로의 숨결을 살피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었다.

이렇게 단 2시간안에 로보수를 끌내고 이를은 걸려야 한다면 소성로화입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되었을 때 이를이 모보는 회열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도 이곳 직장로동계급은 뜻밖의 일로 가동을 멈춘 1호소성로의 보수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죽죽은 로앞에 불거선 직장로동계급의 기운은 떠날빠질 틀에 이갔다.

가동을 멈춘지 불과 몇시간밖에 되지 않는 로안의 온도는 수박 30℃, 사람의 불어가 작업을 하자면 아직 20여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였다.

하루를 빼 날낮밤으로 험난한 일로 끝나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청진같은 시간이었다.

이때 로앞으로 주저없이 나서는 사람은 있었다.

직장장 환분성동무였다.

그의 근엄한 기색에서 로안에 들어설 결심을 읽은 사람들이

저마다 앞을 막아설 때 그는 이렇게 일컬어 말하였다.

«소성로의 숨결을 지키자고 우러가 있는 것이오. 물려설 길이 없소.»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호 같은 밀음에 더 높은 크링카생산성으로 보답하자고 늘 호소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선 그의 모습은 그대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멍이었고, 적응력

으로 힘을 더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뿌듯한 전통입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혁명적성으로 맞이하려는 열의를 안고 떠나온 직장로동계급의 기세는 힘들을 쐈을뿐 아니라

직장장과 함께 작업반장 박성남, 당세로위원장 조정철동무를 비롯한 소성 1 작업반원들이 표대로 고인에 뛰어들며 로의 숨결을 살피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었다.

이렇게 단 2시간안에 로보수를 끌내고 이를은 걸려야 한다면 소성로화입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되었을 때 이를이 모보는 회열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도 이곳 직장로동계급은 뜻밖의 일로 가동을 멈춘 1호소성로의 보수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죽죽은 로앞에 불거선 직장로동계급의 기운은 떠날빠질 틀에 이갔다.

가동을 멈춘지 불과 몇시간밖에 되지 않는 로안의 온도는 수박 30℃, 사람의 불어가 작업을 하자면 아직 20여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였다.

하루를 빼 날낮밤으로 험난한 일로 끝나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청진같은 시간이었다.

이때 로앞으로 주저없이 나서는 사람은 있었다.

직장장 환분성동무였다.

그의 근엄한 기색에서 로안에 들어설 결심을 읽은 사람들이

저마다 앞을 막아설 때 그는 이렇게 일컬어 말하였다.

«소성로의 숨결을 지키자고 우러가 있는 것이오. 물려설 길이 없소.»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호 같은 밀음에 더 높은 크링카생산성으로 보답하자고 늘 호소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선 그의 모습은 그대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멍이었고, 적응력

으로 힘을 더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뿌듯한 전통입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혁명적성으로 맞이하려는 열의를 안고 떠나온 직장로동계급의 기세는 힘들을 쐈을뿐 아니라

직장장과 함께 작업반장 박성남, 당세로위원장 조정철동무를 비롯한 소성 1 작업반원들이 표대로 고인에 뛰어들며 로의 숨결을 살피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었다.

이렇게 단 2시간안에 로보수를 끌내고 이를은 걸려야 한다면 소성로화입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되었을 때 이를이 모보는 회열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도 이곳 직장로동계급은 뜻밖의 일로 가동을 멈춘 1호소성로의 보수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죽죽은 로앞에 불거선 직장로동계급의 기운은 떠날빠질 틀에 이갔다.

가동을 멈춘지 불과 몇시간밖에 되지 않는 로안의 온도는 수박 30℃, 사람의 불어가 작업을 하자면 아직 20여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였다.

하루를 빼 날낮밤으로 험난한 일로 끝나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청진같은 시간이었다.

이때 로앞으로 주저없이 나서는 사람은 있었다.

직장장 환분성동무였다.

그의 근엄한 기색에서 로안에 들어설 결심을 읽은 사람들이

저마다 앞을 막아설 때 그는 이렇게 일컬어 말하였다.

«소성로의 숨결을 지키자고 우러가 있는 것이오. 물려설 길이 없소.»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호 같은 밀음에 더 높은 크링카생산성으로 보답하자고 늘 호소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선 그의 모습은 그대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멍이었고, 적응력

으로 힘을 더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뿌듯한 전통입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혁명적성으로 맞이하려는 열의를 안고 떠나온 직장로동계급의 기세는 힘들을 쐈을뿐 아니라

직장장과 함께 작업반장 박성남, 당세로위원장 조정철동무를 비롯한 소성 1 작업반원들이 표대로 고인에 뛰어들며 로의 숨결을 살피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었다.

이렇게 단 2시간안에 로보수를 끌내고 이를은 걸려야 한다면 소성로화입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되었을 때 이를이 모보는 회열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도 이곳 직장로동계급은 뜻밖의 일로 가동을 멈춘 1호소성로의 보수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죽죽은 로앞에 불거선 직장로동계급의 기운은 떠날빠질 틀에 이갔다.

가동을 멈춘지 불과 몇시간밖에 되지 않는 로안의 온도는 수박 30℃, 사람의 불어가 작업을 하자면 아직 20여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였다.

하

